

사설

내 자식처럼 돌보았다면

우리 사회는 원칙을 고수하려는 사람을 마치 용통성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반면 원칙을 소홀히 하고 적당히 눈치보면서 일 처리하는 사람을 능력과 요령을 갖춘 것으로 생각하는 좋지 않은 버릇이 있다.

다행히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는 원칙을 무시하고 일을 처리하는 것을 누구도 나무라지 않다가 일이 터지고 나면 이제까지 문제삼지 않았던 것들이 뿔뿔처럼 허물로 쏟아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것도 사고가 났을 때뿐 얼마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옛날의 습관으로 다시 되돌아가곤 한다. 바로 이런 사고방식과 생활습관이 오늘 우리 사회를 묶어 놓는 족쇄가 되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19명의 어린이와 4명의 인솔교사 등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화성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사고 역시 우리가 안고 있는 고질병적 사회병리 현상인 원칙을 무시한 적당주의가 불러온 결과라 하겠다.

씨랜드 수련원 화재사건에도 수련원 관계자, 인솔책임자 및 관계공무원들 모두 철저하지 못한 책임의식과 요령 섞인 적당주의적 업무처리가 그 속에 숨겨져 있다. 다시 말해서 어른들의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못해서 새끼들을 애꿎은 죽으로 돌이킨 것은 비극적인 인재(人災)였다. 만약 관계자들이 모두 내자식처럼 돌보고 챙겼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번에도 예나 다름없이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발표될 것이 뻔하다. 하지만 늘 그래 왔듯이 그 대책들이 구체적이고도 철저하게 실천에 옮겨지지 않는다면 결국 어린이들의 억울한 죽음만 남고 부모들 가슴에 무거운 상처만을 남긴 채 유사한 사고는 여전히 반복되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를 일이다.

이와 같은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되겠지만 누구보다도 공무원들의 철저한 직무수행과 투철한 사명감이 요구되어진다. 이익을 추구하는 업자들이야 가 능하면 경비를 덜 들이고 많은 이득을 보려고 할 것이 뻔한 노릇이니 그들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안전을 관리하고 감속해야 할 책임은 관계공무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업자들의 안전을 무시한 이익 챙기기가 안전에 대한 공무원들의 감시감독 소홀에는 인명을 경시하는 무섭고 사악한 독소가 자리잡고 있다. 사람의 목숨은 어떠한 경우라도 목적인 뿐 수단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종종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곤 한다.

우리 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고 새로운 천년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도 우리 사회 도처에 깃들여 있는 인명경시의 병폐와 원칙을 소홀히 하는 적당주의는 반드시 치유되지 않으면 안된다.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사건은 산너머 불로 바라볼 수 있는 남의 사건이 아니라 여름휴가와 방학을 맞아 각종 수련회나 불교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각 사찰에서도 사고 예방대책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사람은 건물 자체가 목조인 데다 일부 사찰은 화재경보시스템이나 소화장비를 완벽하게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대개의 산중 사찰의 위치가 소풍사와 멀리 떨어져 있어 사고가 났을 때 그에 대응하는데 많은 시간이 요구될지도 모른다. 만에 하나 산중 사찰에서의 화재가 날 경우 고귀한 인명피해를 말할 것도 없고 문화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건물들이 소실되는 것이니 불교계는 여름 수련기간을 맞이 전에 더욱 더 철저하게 안전시설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여성불자 전국 조직화”

조계종 포교원 포럼정례화 토대 추진키로

‘여성불자의 새로운 판을 짜자!’ 빠르면 올 하반기에 1600년 한국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이끌어 온 여성불자를 대표하는 조계종 주축의 여성불자조직이 결성될 전망이다.

조계종 포교원은 6월 26일 ~ 28일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 107명의 여성불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여성불자의 새 흐름을 모색하는 워크숍’을 열었다. 이 워크숍을 토대로 포교원은 여성불자들의 교육을 위한 여성불자포럼을 정례화하는 한편, 포럼을 모체로 여성불자조직을 창립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참가자의 대다수(88%)가 여성불자포럼 참가의

사를 표명함으로써 여성불자조직 결성이 순조롭게 이뤄질 전망이다.

67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58.2%의 여성불자들이 여성단체 조직시 조계종과의 관계를 종단에서 후원회 독립체가 돼야 한다고 답했다. 종단에서 여성과 관련 가장 시급히 해야 할 문제로는 ‘여성불자교육’(40.3%)을 꼽았으며, 교육의 중심내용에 대해서는 정제화(49.3%), 불교수행법(16.4%), 리더십개발(14.9%)이라고 답했다.

또한 여성단체가 구성원후 수행해야 할 사업에서도 68.2%가 교육사업이라고 답해 역시 교육에 대한 여성불자들의 높은 욕

구를 실감하게 했으며, 관행 및 제도개선사업, 사회여성운동, 신행개선운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워크숍 참가자들은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으로 해주스님(동국대 교수)의 ‘불교에서 본 여성과 여성운동’을 꼽아 불교 여성운동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포교원 포교부장 현진스님은 이번 워크숍을 “여성불자들의 잠재된 힘을 발현시켜나가는 기회였다”고 평가하고 “새로운 흐름 속에서 힘을 결집할 수 있도록 전국불교여성대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19면) 이은자 기자 (ejlee@buddhopia.com)



고산스님, 청와대 민정수석과 환담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은 6월 28일 신임인사를 위해 총무원을 방문한 김성재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환담했다. 고산스님은 김 수석에게 “건축법 개정으로 사찰 주변에 음식점 숙박업소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사찰의 수행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사찰수행환경 보존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고산스님은 또 뇌물수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태복소장과 관련해 공정한 재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수석은 “법이 아니어도 시민의 양식으로 민족의 문화유산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opia.com)

‘재가자 수선교본’ 발행

조계종 포교연구실 사용할 수 있도록 강의안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본문은 크게 ‘참선의 개요’와 ‘참선교육의 내용’으로 이뤄져 있으며,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통적인 조사선(祖師禪)과 목조선(默照禪)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생활선을 지향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성보도난 사찰주지 징계 강화”

조계종 호법국장회의

조계종 호법부(부장 종고)는 6월 28일 교구본사 호법국장회의를 열고 성보도난 예방 방안을 다룬다.

이번 회의에서 호법부는 성보도난 예방과 관련, “주지스님들이 사찰을 비울 때 발생한 경우가 50% 이상”이라고 지적하고 “출타시 대중 및 소임자들의 도난에 대한 경각심과 책임감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호법부는 또 “성보를 도난당한 사찰의 주지스님에 대해서는 면직

이상의 징계를 받도록 강력하게 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통도사 화엄사 등 3개 교구를 제외한 21개 교구본사 호법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성보도난 예방 외에도 징계사 사후 관리, 교구 호법국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7월말 열리는 총회에 제출할 사면동의의 요구와 관련, 호법부는 20명 안쪽의 범위에서 사면 복권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태고종사 발간 준비모임’ 결성

태고종(총무원장 인곡)은 종단 숙원 사업 중 하나인 (한국불교 태고종사)를 발간하기 위한 기초작업에 들어갔다. 종단사 발간에 뜻을 같이 하는 수월 해공 지홍 스님 등 15명의 스님들은 6월 23일 서울 성북구 종무처 회의실에서 ‘종단사 발간을 위한 준비모임’ 결

성을 위한 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대표에 현수열스님(제주 선광사 주지)을 선출했다. 발기인대회에 참석한 스님들은 매일 회비를 내 기금을 적립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회원확보를 위한 홍보활동과 기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경숙 기자

조계종 17기 행자교육원 16일까지 입교지원 마감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은 오는 8월27일부터 9월18일까지 직지사에서 열리는 제17기 행자교육원에 입교할 행자들의 입교지원 원서를 5일부터 16일까지 각 교구본사에서 접수한다.

이번 행자교육 대상자는 남행자 280명, 여행자 203명으로 모두 483명이지만 3백여명이 입교

지원서를 낼 것으로 보이며, 사미·사미니계 수지자는 250명 내외가 될 전망이다.

한편 교육원은 승복 유통질서의 개선과 중간상인들의 부당한 폭리를 막기 위해 사미·사미니의복의 공동구매를 요청하는 협조문을 각 교구본사에 전달했다. 직삼, 동방, 두루마기, 장삼, 등 사미니 의복을 공동구매할 경우 80~9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55만원 정도로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재경 기자

문화재 절도법

7월 중점 추적

경찰청, 일제거거림

경찰청은 7월 한달 동안 문화재 절도법 일제단속에 들어간다고 6월 29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 기간중 문화재 및 석물의 도굴 절도 국외반출 행위와 불법매매 보관행위 등을 중점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형시장 호화주택 등에 보관중인 오래된 석물의 출 처를 역추적해 거래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조계종총무원장 고산스님은 25일 김광식 경찰청장에게 친서를 보내 도난된 성보문화재를 되찾는 데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정성운 기자

조계종 청사 설계

8월16일까지 공모

조계종총무원은 6월 30일 ‘총무원 청사 및 조계사 성역화불사 계획 지명초청 설계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일전건축 아키텍건축 등 5개 설계회사가 초청됐다.

총무원은 △현 교육원 부지에 바닥면적 500평으로 지상 3층, 지하 3층, 건평 4천평 또는 4천5백평 규모 △신행·포교 공간으로의 조계사, 행정업무 공간으로의 청사 △청사는 대웅전 높이(19m)와 같거나 낮은 높이 △인근의 인사동, 우정국, 수송공원, 경복궁을 잇는 역사 문화성 등을 고려한 작품의 제출(마감 8월16일)을 요청했다. 정성운 기자

현대불교 뉴스

737-8881

현대만평



사부대중의 목소리

직장인을 위한 2년제 야간

대원불교대학

통신·출강 신입생 모집

1972년에 설립된 본 불교대학은 불교의 생활화·현대화·대중화를 위한 불교지도자와 포교사 양성을 위한 야간 2년제 전문과정임.

<27년간 2천여명 졸업·40기생 모집중>

- 1. 강의시간 9월 1일 입학·주5일 수업(월,화,수,목,금) 19:00~20:30
- 2. 교육과목 20개 과목의 범패의식(범현스님) 특강(동·하계 스쿨타임 범패의식 교육)

1 학년	1 학기 (16주)	2 학기 (12주)
1 학년	◇ 불교경전의 이해 ◇ 초기불교의 이해	◇ 불교의 종교학적 이해 ◇ 불교상용 의식
	◇ 화엄사상 ◇ 구사론(아비달마)	◇ 중국불교의 이해 ◇ 불교상용의식 실습
2 학년	◇ 부파불교의 이해 ◇ 대승기신론	◇ 밀교학의 이해 ◇ 우리말 불교의식
	◇ 한국불교의 이해 ◇ 선사상	◇ 천태사상 ◇ 우리말 불교의식 실습

- 3. 교수진 권탄준박사, 최종석박사, 최봉수박사, 허경구박사, 김경집박사, 김종명박사, 김호기박사, 권오성박사, 범현스님(동국대), 정성준박사, 김은희박사

초빙강사 월운스님(동국대 역경원장), 무진장스님(전 조계종 포교원장), 권기종(동국대 사회교육원장), 강건기(전북불교대 학장)

4. 모집 및 전형

모집과목 및 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전형방법
● 불교학 출강 00명	● 체계적 불교교육을 원하는자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서류전형
● 불교학 통신 00명	● 대중불교 지도자 자질보유자	● 주민등록등본1부 (사진 3매)	합격자 개별통지

5. 원서교부 및 접수 8월 28일까지 (본대학 서무과) ※수시접수가능

- 원서교부 ▶ 서울 불교 문화센터 (불교방송국) (02)703-0108
- ▶ 대구 적선사불교서점 (053)255-8875
- ▶ 제천 묘장암 (0443)653-3249
- ▶ 목포 축성암 (0693)461-1212
- ▶ 원주 범용사 (0371)742-2701
- ▶ 진해 삼일사 (0553-542-6531)
- ▶ 하동 도림사거사리 (0595)882-4585

6. 특전사항

- ◇ 법사고시 경우 법사호 수여
- ◇ 포교당 개원시 종교법인의 보호
-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 ◇ 포교실습 지방자치체 제공
- ◇ 자원봉사자 장학혜택 부여

대원불교대학

140-190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02)754-1613, 776-7156, 773-9171, FAX : 756-7258